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보고(일본 도쿄지사)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0.1월)

1. 일본과 대만 유기농산물 상호 인정제도 도입

- 농림수산성 발표에 의하면, 금년 2.1부터 일본 및 대만내 유기농산물 인증 취득 제품을 상호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유기마크를 부착한채로 양국간의 상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 일본 및 대만 양국간은 2019.10.30 유기농산물 상호 인정제도에 관한 각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금년 2월1일부터 정식으로 상호 인증 수출이 가능하게 됨
- 상호 인증제도로 인해 일본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자국 인증 마크를 그대로 부착한채 수출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별도 비용을 들여 상대국 인증 취득 절차 없이 수월하게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짐
- 현재, 일본과 상호인증하고 있는 유기농산물 협약국가는 EU, 스위스, 미국, 캐나다, 대만의 5개 국가 지역임
- 일부 한국내 수출업체들의 경우 일본 유기농산물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소요 부담이 커 향후 한일간의 상호 유기인증 제도 도입을 통한 수출확대 검토가 필요시 됨

일본 유기인증 마크	대만 유기인증 마크
	

※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2. 일본 농림규격(JAS) 일부 개정 예정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유기농산물 등의 일본 농림규격(JAS) 일부 개정을 목적으로 2020.1.31. 일본농림규격조사회 주최 심의회가 개최됨
-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제품의 계놈편집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유기인증 사용불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제조과

https://www.maff.go.jp/j/press/shokusan/syoku_kikaku/200117.html

3. 일본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개정에 따른 표시기준 변경

-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첨가물 등의 성분 규격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식품표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식품 기존 첨가물인 「Isomaltodextranase」 및 「Japanese persimmon colour」에 대한 개정 규격기준이 이루어졌으나, 「2021.1.14.일 이전에 제조 가공되었거나 수입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 규격 기준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예 조치를 발표함

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 2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46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떡볶이 소스 및 단무지에서 첨가제 사용 부적격 사례로 인한 2건의 위반이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대장균 검출 등 위생위반이 16건(34.8%), 곡물류의 아플라톡신 검출 12건(26.1), 잔류농

약 및 항생제 등 위반 9건(19.6)으로 나타났으며, 첨가물 위반이 8건(17.4)으로 나타남

-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바이러스감염증 발생으로 인한 중국산 식품류의 대일 수출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위반건수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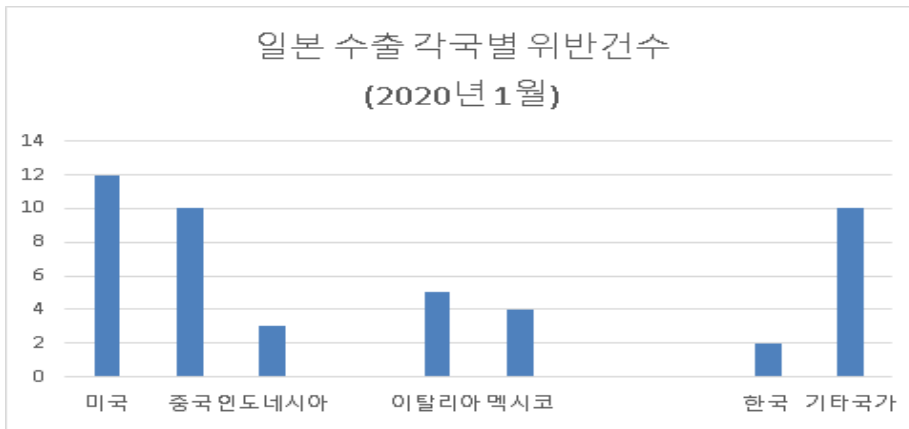
○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미국은 12건, 중국의 경우 10건의 식품위반사례가 발생하여 전체 수입국중에서 위반건수가 제일 높은 국가들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12건의 위반건수 중 옥수수 및 견과류 등에서 아플라톡신 6건, 곰팡이 및 변질 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6건으로 모두 상기 두가지 원인으로 인한 위반사례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총10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는데, 냉동생강에서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2건 및 냉동 수산물등에서 미생물 위반 사례가 4건이 발생하였으며, 땅콩류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3건이 발생함
- 다음으로 위반이 많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총5건이 발생되었는데, 냉동 아이스밀크 등에서 세균수 위반등의 위생위반이 4건이 발생하였으며, 신선파슬리에서 잔류농약 위반 1건이 발생함.
- 멕시코의 경우 신선 아보카도에서 비펜트린 잔류농약의 기준치가 초과하는 4건의 위반이 발생함

○ 한국산 식품류 위반사례

- 떡볶이 소스에서 첨가물인 폴리솔리베이트 80의 기준치 초과 사용 및 단무지에서 솔빈산 및 이산화유황이 검출되는 사용기준 부적합 판정된 위반사례가 각1건씩 모두 2건이 발생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